

남도 꽃으로 전한 ‘희망의 봄소식’

신안군·교육청·마을활동가·주민 등 ‘거버넌스형’ 추진
코로나19 어려움 대구·경산 주민에 톨립 1만송이 전달

신안군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톨립 1만 송이를 전달하는 등 희망의 봄소식을 전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사랑의 꽃 보내기’ 행사는 관 주도 행사가 아닌 민간 마을활동가가 제안하고 신안군과 교육청이 협력해 거버넌스형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2일 신안군에 따르면 대구 경산에 톨립 꽃을 보내자는 아이디어는 문병교 전 전남마을활동가네트워크 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이에 박우량 신안군수와 김재흥 신안교육장이 적극 호응, 임자도 주민과 전남마을활동가들이 공동 참여하게 됐다.

지난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임자도 주민들과 신안군교육청, 전남마을활동가들이 협력, 코로나19로 지쳐가는 대구·경산에 톨립꽃 1만 송이를 전달했다. 지난달 30일 5t 장축 트럭 2대에 톨립 화분과 장미꽃 등의 적재 작업을 마치고 이틀 날 오전 군청에서 환송식을 가졌다.

군민의 정성과 희망을 담은 톨립 화분은 대구시에 1천4개, 신안군 자매도시 경산시에 1천4개가 전달됐다. 또 신안 임자도에서 재배한 신안 톨립 7천본, 전남 마을활동가들이 수집한 3천 송이의 꽃을 추가해 총 1만송이의 꽃을 전달했다.

전달된 꽃은 대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대구마을 활동가들이 팀



신안군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톨립 1만 송이를 전달하는 등 희망의 봄소식을 전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사랑의 꽃 보내기는 민간 마을활동가의 제안에 신안군과 교육청이 협력, 거버넌스형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영광경찰 ‘민식이법’ 홍보 주력

영광경찰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달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홍보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민식이법’의 주요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횡단보도 신호기·안전표지·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의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를 위반해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규영 영광경찰서장은 “주차된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에 대한 차량 충돌을 막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차차 차량에 대한 계도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광=김동규기자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FTX 장흥경찰·보건소 공동 훈련

장흥경찰서는 2일 “코로나19 자가 격리 무단이탈자 대응에 따른 FTX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무단이탈자 대응 FTX는 장흥군보건소와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자가 격리 중 무단이탈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됐다.

실제 훈련은 관할 지구대 순찰차가 선출 후 군 보건소에서 후 조치하는 상황으로 이뤄졌다. <사진>

FTX 훈련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주민들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지만 이번 훈련을 통해 격리대상자 이탈 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인규 장흥경찰서장은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정보공유 및 합동 훈련을 통해 군민 모두가 안전한 장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장흥=노형록기자

강진·해남,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공모 ‘맞손’

채류형 패키지 콘텐츠 관광 자원화 방안 논의

강진군과 해남군이 2020년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힘을 모은다.

2일 강진군과 해남군에 따르면 최근 고산윤선도유적지 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주관 ‘2020년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공모사업’ 선정 협력을 위한 실무회의를 가졌다.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은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는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이다.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공모사업 선정 시 2개 시·군이 연계해 채류형 패키지 콘텐츠를 관광자원화 할 경우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강진군은 지난 달 10일 해남군에 시·군 연계 공모사업 신청 논의를 제안했다. 강진군과 해남군은 다산 정약용과 고산 윤선도 등 인물을 중심으로 한 관광 패키지 상품 개발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

고산 윤선도와 다산 정약용은 해남과 강진을 대표하는 인물로 다산 정약용의 어머니가 해남 윤씨이며 고산 윤선도의 후대손이라는 연관성을 갖고 있다. 자연, 역사, 예술, 문화, 차, 인물, 먹거리, 길 등 8개 핵심 키워드를 도출해 강진군과 해남군의 관광자원을 서로 공유·연계할 경우 채류형 관광 브랜드로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양시, 1분기 공모·시상사업 팔목 성과

34개 사업 선정 133억 확보 전년 동기比 6억 증가

광양시가 올해 1분기 공모·시상 사업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2일 광양시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중앙부처·전남도 등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34개 공모·시상사업에 선정돼 133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억 원 더 확보한 것이다.

3월 말까지 공모·시상사업 발굴 규모는 총 130개 사업 2천365억원이며 이 중 34건(133억원)이 선정됐다. 87건(1천93

4억원)은 공모 심사 중이거나 향후 준비 중으로 추가 선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하반기에 집중된 각종 시상사업은 지속 관리와 사전 준비 강화로 대응하고 있다.

주요 선정 공모사업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64억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24억원) ▲지역SW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12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시·군 별로 20억원 켜의 국비가 100% 지원되며 해남군은 고산윤선도 유적지 일원 정원 조성, 강진군은 다산유적지 기반시설을 추진해 광역단위 관광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중화 해남군 기획실장과 임재용 강진군 기획홍보실장은 “지자체간 협업을 통해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교류 협력으로 동반 발전과 주민들의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공모사업은 4월 전남도 1차 심사 이후 5월 국토교통부 서면평가, 6월 종합평가를 거쳐 대상 지역을 확정한다. /강진=정영록기자 /해남=박필용기자

억원) 등이다. 또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0억 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군은 중앙부처·전남도 등의 사업 추진 방식이 상향식 공모사업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 매 분기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방기태 광양시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 재원 충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모·시상사업 외부 재원 확보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며 “전 부서가 상급기관의 정책 기조에 맞춰 다양하고 질목 가능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선제 대응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허선식기자

함평군 ‘국민신청실명제’ 대상 사업 접수

추진상황 공개 행정 투명성 ↑

함평군은 2일 “4월 한 달 동안 ‘국민신청실명제’ 대상 사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 요구에 따라 정부 정책이나 각 지자체별 사업 추진 상황을 공개하는 제도로 2018년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전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군은 4월을 포함해 7월과 10월 신청받을 예정이다. /함평=신재현기자

함평군민이나 함평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신청은 군 홈페이지(국민신청실명제 메뉴)나 기획감사실에 우편(함평군 합평읍 중앙길200) 또는 팩스(061-320-3512-3575)로 접수하면 된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불분명한 신청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4월에 신청된 사업을 오는 5월 중 함평군 정보공개심의회에 상정하고 선정 사업들은 군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게시판에 공개한다. /함평=신재현기자

완도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 선정 郡, 7천만원 확보 다양한 공연 추진

완도군은 2일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0년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민의 문화 수준을 향상시켜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사업비 7천132만원을 확보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오페라, 연극, 뮤지컬, 국악, 무용 등 다양한 분야의 공연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문화공연 사업을 통해 대중가요 13건, 국악 3건, 연극 1건, 뮤지컬 1건, 무용 1건, 총 19건의 공연을 추진한 바 있다. /완도=윤보현기자

목포 어린이, 돼지 저금통 기부 훈훈

박하율·박하준 남매 원상동에 3만8천400원 전달

목포시에 거주하는 어린이 남매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염원하는 따뜻한 기부를 펼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사진>

목포시 원상동에 거주하는 박하율(9)·박하준(6) 남매는 최근 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돼지저금통에 모은 3만8천400원을 코로나19 극복 성금으로 써달라며 기부했다.

기부된 성금은 전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용계좌로 입금돼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하율 어린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고 들었다”며 “동생이랑 같이 모으고 있는 저금통인데 힘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담양관광기념품 공모전 참여 하세요”

郡, 22-24일 신청 접수

담양군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관광기념품을 공모한다.

2일 담양군에 따르면 담양의 역사와 문화적 특색이 담긴 관광기념품을 발굴하기 위해 ‘2020 담양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담양관광기념품 공모전은 전 국민 누구나 응모 할 수 있으며 담양 관광 자원 등을 테마로 한 특색 있는 공예품, 장식품, 생활용품 등으로 실용적이고 지속 생산이 가능한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응모는 신청서, 제품 설명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 출품작과 함께 담양군 녹색관광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다.

나속자 담양군 관광정책담당은 “아름다운 담양 관광기념품을 통해 담양군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녹색관광과(061-380-3151 김경근 주무관)로 문의하면 된다. /담양=정승균기자

목포소방서, 임야 화재 예방 활동 강화

목포소방서가 봄철 논·밭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 등에 따른 임야 화재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일 목포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과 25일 신안군 압해읍 복용리 밭 주변에서 잡풀 및 쓰레기를 태운 불씨가 주변으로 확대돼 인근 대나무밭 등으로 번져 잡목 등이 소실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목포소방서는 관할 산림 인접 지역에 화

재 예방순찰 등을 강화하고 마을 방송을 활용, 임야 화재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선제적 예방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의용소방대 순찰조를 구성, 취약시간대 산불감시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장경숙 목포소방서장은 “산림 및 인접 지역에서는 소각행위를 금지하는 등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목포=강호중기자

화순경찰서 ‘고인돌 등갯불’ 확대 호평

농협 화순지부 경광등 전달

화순경찰서가 이동식 경광등을 활용한 범죄예방 시설인 ‘고인돌 등갯불’을 확대 시행한다.

2일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5일 농협 화순군지부와 협업으로 진행한 이동식 ‘고인돌 등갯불’ 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고인돌 등갯불’은 112신고가 빈번한 곳과 농산촌 보관장고, 가축집단 사육농가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우범지역을 부각 장소로 선정, 112순찰 근무 시 근무자가 이동하면서 경광등을 부착하는 치안

시책이다.

화순경찰은 ‘고인돌 등갯불’을 통해 관내 5대 범죄 발생이 전년 272건에서 231건으로 15.1% 감소하는 등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화순경찰은 농협 화순군지부와 협업해 ‘고인돌 등갯불’ 100대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고인돌 등갯불’의 경광등은 태양광 충전식으로 가볍고 빛들이 스며들지 않아 경찰관이 필요로 하는 장소에 편리하게 부착할 수 있다. /화순=이병철기자



영암군 ‘적극행정 최우수’ 행안부장관 표창

영암군이 ‘2019년 적극행정 우수지역 평가’에서 행정안전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사진>

2일 영암군에 따르면 적극행정 우수지역 평가는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유발과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적극행정 정책의 전국적 확산을 목적으로 실시됐다.

영암군은 공직문화 조성 및 제도 정비, 사전 컨설팅을 활용한 대불국가산단 기업 불편사항 대폭 개선 등 현장의 적극행정 모범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군은 지난 2월 말 대한상공회의

소 주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와 8천 8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적극행정 우수지자체 평가에서도 우수지역 전국 1위에 선정된 바 있다.

영암군은 앞으로 지방규제 현장신고센터 운영, 규제개혁 간담회를 활성화하는 한편, 사전컨설팅 제도와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지원하며 반기 별로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각종 인사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무원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영암=이병영기자